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6> 호떡

소란스러운 것을 '호떡집에 불난 듯 하다'거나, 수시로 번덕부리는 것을 '호떡 튀집듯 한다'라는 말에서 보듯 호떡의 이미지는 그리 상쾌한 것이 못된다. 하긴 '호(湖)'라는 말자체가 중국문화의 주변부라는 말이다. 호떡은 북쪽 오랑캐들이 먹는 떡이다. 이는 주류음식이 아니라 변방의 먹거리이며,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통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호떡이 들어온 것은 구한말이라고 한다. 1882년 임오 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육군병력 3,000명이 조선에 진주하였다. 그 때 청나라 상인 40명도 함께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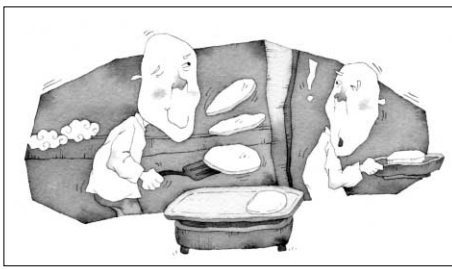
하지만 그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청나라는 망해버렸다. 하지만

호떡먹기 싫어서 운문종을 떠났다가 호떡먹기 싫어서 다른 신중으로 갔다는 말에겐 들어보지 못했다. 그 덕분에 운문 선사에게는 호떡법문이 많이 남아 있다.

어느 날 운문선사께서 재(齋)를 지내고 난후 호떡을 한입 깨물고 나서 말했다.

"제석천왕의 콧구멍을 물어뜯었더니 제석이 '아야! 아야!' 하는구나."

듣금없이 호떡을 먹다 말고 한마디 날리는 통에 대중들이 여러동절했을 것 같다. 호떡을 먹으면서 공부하려는 마음은 간곳이 없고 달콤한 맛만 즐기고 있는 후학들이 마뜩찮았는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호떡법문은 몇 개 더 있다.



호떡 법문으로 유명한 운문선사 대중앞에서 호떡 한입 깨물고는 "제석천왕 콧구멍 물어 뜯었더니..."

하지만 그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청나라는 망해버렸다. 하지만 상인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음식집을 열고 만두나 호떡같은 것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현재의 호떡은 6·25때 미군에게 배급받은 밀가루에 막걸리를 부어 하루저녁 재워 부풀린 다음 연탄불에 드럼통 썰판을 올려놓고 구워서 판 것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고려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중기의 선사까지 호떡을 구경하지도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호떡은 임오 군란 내지 6·25라는 '전쟁'과 인연이 깊다. 호떡의 전생애까지는 선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

'운문선사의 호떡' 역시 '생사(生死)와 의 전쟁'을 위한 무기인 화두이기 때문이다. '운문호떡(雲門胡餅)'의 전말은 이러하다. 어떤 남자가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호떡이니라."

선종에서 '호떡' 하면 운문선사이다. 전후사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에 호떡을 좋아하거나 자주 만들어 먹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가 그 회상에 호떡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것 같다.

취임에게 어느 스님이 재(齋)를 청하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재에 참석하리다."

"물으십시오."

그러자 문득 호떡을 하나 집어들었다.

"여기에도 법신이 있습니까?"

"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신을 먹는 것이군."

그러자 그 스님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재에 가자고 청하기도 못했다.

승수가 참문너머로 호떡을 만들고 있는 스님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떡값을 되돌려요."

'호떡존자' 운문선사는 남의 법문까지 빌려와 당신의 법문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취임의 문답에는 "스님께서 정중하게 법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승수의 문답에는 "스님께서 호떡화로에 찢어 하십시오"라고 착어(着語)하여 호떡법문계의 지존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나저나 호떡이 '어떻게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것' 인지를 참구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

한쪽에 치우치면 반쪽 신도 아닌가요?

참선-교리공부 병행하는 안산 보문선원

"참선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그저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교리만 공부하는 불자들은 글자에 매여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수행이란 행(行)과 해(解)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공부라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교리를 많이 알아도 분간을 못하고, 마음을 닦는다 하더라도 교리를 알지 못하면 바른 길을 모르게 되고, 바른 덕도 되지 않습니다." (안산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

참선하려면 교리 필수... 자원봉사로 회향 공부 더 원하는 신도에겐 불교대학비 지원

11월 14일 오전 안산 보문선원 시인선방.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방 안에서는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어느 선방도 조금도 다른 모습은 없다. 하지만 이곳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모두가 교리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선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어느 새인가 신도들 사이에서는 '자격'이 있어야 참선수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갈 정도다. 자격이란 다른 아닌 '교리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림 스님이 지도하는 참선수행은 매주 목요일 새벽과 오전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서너 차례 선방에 나와 수행을 한다. 새벽반에 나오는 불자들 대부분은 새벽예불을 올린 뒤 참선수행을 하고 또 108배 정진이나 기도정진을 한다. 오전 반 불자들은 역시 참선을 마친 뒤 공양을 하고 다시 자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제철이 되면 신도들은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매일같이 절에 나와 보림 스님과 이곳의 외국인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한다. 집에 돌아가서도 수행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교리 강좌는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도들은 금강경 화엄경 육조단경 등의 강좌를 통해 기초교리를 배우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외부인사 초청강의도 듣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일주일동안 매일같이 초청강의를 열기도 한다. 그동안 무진장 스님 등 많은 스님들과 대원불교대 최봉수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우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



참선을 하고 있는 보문선원 신도들. 이곳 신도들은 매주 목·금요일 참선과 교리공부를 하며 부처님 법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더 심도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신도들은 일정액의 수업료까지 지원해서 동산불교대학에 보낸다.

보문선원 신도들은 참선이나 교리강좌가 끝나고 나면 신도들끼리 스스럼없이 어울려 자신의 공부에 대해 토론을 한다. 매일 새벽기도가 끝난 뒤에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공부점심을 받는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다보니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보문선원 신도들의 공부는 여기서 끝

나지 않는다. 이들은 공부한 것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모두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보문선원이 오랫동안 전개해오고 있는 '안경보시운동'은 물론이고, 인근 복지관을 포함한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원래 목요일(16일)에 진행되는 참선수행이 화요일(14일)로 앞당겨진 것도, 16일 안산의 복지단체들이 연합해 진행되는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031)401-2540

글·사건/인사-한명우 기자

신도들이 말하는 '우리이렇게 공부해요'

기복으로 시작했지만 정법 알게 됐어요

▶ 새벽예불과 목요일 참선을 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기초수준이지만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체계가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신행화·45)

▶ 지금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새기면서 참선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행과 교리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안·50)

▶ 아들 임시를 앞두고 기도만 3년 했어요. 그러다가 참선과 교리공부를

함께 시작했는데, 글썽 뭐랄까요 수행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복이예요. 기복으로 시작한 수행이지만 지금은 정법을 알게 됐죠. (반아지·48)

▶ 2년제 대학인 '안산1대학'에 개설돼 있는 '노인대학' 열 다닙니다.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게 진짜 젊음을 주는 것은 봉사활동이예요. 스님 모시고 7년간 공부했어요. 나이가 많아 잘 못지는 않지만 스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원만행·72)

▶ 남편과 함께 수행하고 교리공부해요. 아마도 어느 한쪽에만 매달렸

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몸으로 부딪치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내성적이어서 혼자서는 어떤 일도 잘 해내지 못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남편과 같이 집에서 사경을 한 지도 10년이 됐네요. (수월심·48)

▶ '초파일 신도'였던 저를 변화시킨 것은 주지스님이세요. 기도에만 매달렸었는데, 참선수행과 교리공부를 병행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알게 됐고, 참선수행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됐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만 하다가 '반쪽 신도'에 머물렀을 거예요. (연화심·4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관
전화주신는 본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랑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간(肝)의 건강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양파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추출하여 흰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도중 (민속동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과 진정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폭**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 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1일 1끼 40g 1포 × 60포 60,000원

★ **처방장분말 (우리콩)** 1Kg 20,000원

★ **처방장흰 (우리콩)** 1Kg 25,000원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드립니다.